

기고

작은 점검과 습관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농가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장작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높고 설치가 간편해 겨울철 대표 난방기구로 자리 잡았지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겨울철 주택 화재의 상당수가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에서 발생하며, 특히 화목보일러는 불티 비산, 과열, 연통 막힘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작은 실수가 곧바로 화재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 보일러 주변에 쌓여둔 장작이나 농자재, 비닐, 종이상자 등에 불꽃이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전라남도에서도 화목보일러 사용 중 굴뚝 불티가 산림으로 날아가 산불 위험 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통 내부에 쌓인 그을음이 착화되어 화재로 확대될 뻔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모두가 “잠깐 괜찮겠지” 하는 방심에서 시작된 사고들이다.

화목보일러는 자동 온도조절 기능이 없고 지속적인 고열이 발생하는 만큼 ‘설치’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기본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보일러 주변 2m 이내 장작·농자재 등 가연물 제거
2. 소화기 또는 물통 등 초기진화 장비 상시 비치
3. 연통 내부 재·타르 정기 청소 및 점검
4. 과도한 연료 한꺼번에 투입 금지

여기에 더해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철이나 취침 전에는 반드시 불씨를 확인하고, 장작은 소량씩 나눠 넣어 불씨를 들이자. 짙은 장작이나 쓰레기 조각은 연기와 과열을 유발하므로 피해야 하며, 굴뚝 주변 낙엽과 비닐 등 불티가 옮겨붙을 수 있는 물질도 수시로 치워야 한다. 또한 소화기 사용법과 119 신고요령을 가족과 함께 익혀두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특별한 원인보다 ‘관심 부족’에서 시작되는 생활형 사고다. 하루 한 번 보일러 주변을 둘러보는 작은 점검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난방기구가 오히려 위험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안전을 점검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울겨울,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빈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경영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부700원

독/자/기/고

광주 광산구 가선거구 정수 축소안 지역의 삶을 기준으로 재검토 해야



윤혜영 광주 광산구의회의원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 광주 광산구 가선거구 의원 정수를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지역 대표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선거구는 8개 행정동이 묶인 도농 복합 지역으로, 면적이 넓고 생활권의 성격도 다양해 의석 수는 곧 주민 대표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선거구 획정이 단순한 계산식에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의석을 조정한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의석도 함께 줄어들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통로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시 내부의 불균형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은 숫자를 맞추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범위와 생활권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기초의회 선거구는 주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 단위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동은 단순한 행정 구획이 아니라 생활과 정서가 쌓여 형성된 지역 공동체의 단위다. 각 동마다 생활 여건과 주민 요구가 다르며, 그 차이를 의회 안에서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것이 기초의회의 역할이다.

광산구 가선거구는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분량동 등 8개 행정동이 하나로 묶인 도농 복합 지역이

다. 광주광역시 선거구 가운데서도 면적이 가장 넓고, 농촌 지역과 산업단지가 함께 포함돼 생활권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면적이 넓고 행정 수요가 복잡한 선거구일수록 충분한 의석을 통해 각 생활권의 목소리를 고르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체감한 점도 분명하다. 의석이 충분할수록 생활권마다 다른 주민의 목소리를 더 고르게 담아낼 수 있었다. 작은 동네의 불편이나 소외된 지역의 문제도 의회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졌다. 반대로 의석이 줄어들면 넓은 지역을 소수의 의원이 나눠 맡아야 하고, 그만큼 현장을 세밀하게 챙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의석이 줄어들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할 주민 삶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룡동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분명해진다. 어룡동은 선운2지구 조성 등으로 도시 구조와 생활권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단기적인 인구 수치만을 기준으로 의석을 줄였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선거구 획정은 현재의 숫자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도시 변화와 생활권 구조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인구 기준은 필요하지만, 면적과 생활권, 행정 수요가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균형 있는 획정이 가능하다. 숫자만으로 균형을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지역 간 대표성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은 한 번 정해지면 오랫동안 지역의 정치 구조와 대표성을 좌우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광산구 가선거구의 정수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촘촘히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역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바라봐야 할 때다. 지역의 삶과 정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윤혜영 광주 광산구의회의원 최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 광주 광산구 가선거구 의원 정수를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지역 대표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선거구는 8개 행정동이 묶인 도농 복합 지역으로, 면적이 넓고 생활권의 성격도 다양해 의석 수는 곧 주민 대표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선거구 획정이 단순한 계산식에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의석을 조정한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의석도 함께 줄어들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통로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시 내부의 불균형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은 숫자를 맞추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범위와 생활권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기초의회 선거구는 주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 단위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동은 단순한 행정 구획이 아니라 생활과 정서가 쌓여 형성된 지역 공동체의 단위다. 각 동마다 생활 여건과 주민 요구가 다르며, 그 차이를 의회 안에서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것이 기초의회의 역할이다.

광산구 가선거구는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분량동 등 8개 행정동이 하나로 묶인 도농 복합 지역이다. 광주광역시 선거구 가운데서도 면적이 가장 넓고, 농촌 지역과 산업단지가 함께 포함돼 생활권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면적이 넓고 행정 수요가 복잡한 선거구일수록 충분한 의석을 통해 각 생활권의 목소리를 고르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음력 12월 25일)

48년생 여가 지기 인기 재촉 걸음 가벼워져 60년생 멋있고 소문이 날 것 이 퍼져 72년생 슬픔은 열어지고 희망이 다시 온다 84년생 이무 걱정없이 신선놀음 해보자 96년생 개워 맞추기 대안 순건을 넘어서자

51년생 이해는 하지만 심기는 불편하다 63년생 충추고 노래하고 흥에 취해보자 75년생 순서가야. 면 뒷집 지고 구경하자 87년생 숨겨져 있던 단계를 밖으로 꺼내보자 99년생 애쓰고 노력했던 결과가 나타날다.

54년생 말하는 지랑보다 지간을 열어보자 66년생 성급한 기대 갖지마라 물 마셔야 한다 78년생 다시 보는 확인 만약에 대비 하자 90년생 안락여 도배부른 소식을 들어보자 02년생 쉽게 벌어진 기적 만사가 불려진다.

57년생 든든한 지원군이 수고를 덜어준다 69년생 기술자 솜씨에 경항을 더해보자 81년생 발꿈치에다 공부 빛을 밝혀준다 93년생 다른 생각 의견 경답임을 알아보자 05년생 잠시 오는 위기 슬기롭게 맞서보자.

49년생 걸음으로 초라해도 속으로 화려하다 61년생 불고는 소방관 어디든지 달릴지 73년생 모든 준비 끝났다. 출발선에 서보자 85년생 똑똑한 지만 누계점을 받아본다 97년생 예뻐 보이는 것 하라다기 미움이 되어간다.

52년생 속도를 늦추고 게으름을 피워보자 64년생 끊임없는 구애로 허락을 받아내자 76년생 불리한 거래에도 도장을 찍어내자 88년생 가난이었던 부진 글이 보여진다 00년생 최고라는 칭찬 결론하게 받아내자.

55년생 조심스러운 행보 권위도 지켜내자 67년생 흉다 하는 결론 의심 없이 가야 한다 79년생 멀리 있던 목표 무모로 보여진다 91년생 책임지는 모습 겸수로 매겨진다 03년생 행복이 먼저 오는 만남을 가져보자.

58년생 거짓이라 쓰인 유혹이 다가온다 70년생 두둑한 실뭉치 일흔 호기를 부여보자 82년생 의리도 우정도 허공에 흩날린다 94년생 씩씩한이 별이나 미련 남기지 마라 06년생 주어진 여건에서 으뜸이 되어보자.

50년생 착하고 믿음직한 이웃이 되어보자 62년생 어려운 부탁도 웃으면서 해보자 74년생 돌아서는 모습 차갑고 쓸쓸하다 86년생 반대도 성화도 무시하고 건-뉘자 98년생 묵혀있던 갈등 먼저 손을 잡아주자.

53년생 여전히 힘들어도 포기하는 금물이다 65년생 새로운 인연들과 꿈을 만들어보자 77년생 정해진 원칙 그대로를 따라가자 89년생 피하고 도망가면 손해가 배가 된다 01년생 남다른 성정세 뿌듯함이 차오른다.

56년생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 오고간다 68년생 질투와 부러움 차곡 차곡 쌓여간다 80년생 고생의 고생을 감으로 받아내자 92년생 용기 있는 고백하러가 달라진다 04년생 살려고 흥분되는 재안을 들어보자.

59년생 욕심도 정도껏 지나면 흥이 된다 71년생 금한 불 꺼지지 여유가 다시 온다 83년생 자신감 결여 땅을 치고 후회한다 95년생 성격순이 아니다. 진심만 보여주자 07년생 고치고 다시 쓰면 오답을 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